



강진 김명일



고흥 한운섭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규일



순천/광양 김승호



여수 김석철

울포 활어잡기 페스티벌 보성군 '돈 좀 낚았다'

회천면 울포, 명실상부 전국 최고 휴양지로 부상



보성군 5월 통합축제에서 선보인 울포해변 활어잡기 페스티벌 행사가 회를 거듭할수록 대박행진을 하며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 개최된 활어잡기 페스티벌 행사장인 울포해수욕장에는 주말이면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몰릴 듯 밀려들고 있다.

활어잡기 페스티벌의 대박행진은 회천면 식당가는 물론 보성군 지역경제 전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천

면 주변 시설물들은 전년 대비 평균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숙박업, 요식업, 편의점까지 성수지 못지않은 손님 물기로 연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회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6월은 대개 비수기라 생각하는데 이번 6월 같은 경우에는 연일 손님이 밀려다쳐 정말 정신없이 일했다."면서 "벌써 여름 성수기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오는 22일 남해안에

서 가장 먼저 울포해수욕장이 개장하면 안전하게 물놀이 즐기려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더 많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성군 회천면이 국민관광지로 급부상 할 수 있었던 요인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양 시설들과 다양한 연령대를 수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즐길거리, 풍요로운 먹거리 등이 조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보성군 회천면에서는 아름다운 남해안을 보며 해수 노천욕을 즐길 수 있는 울포해수욕장(연중무휴)가 운영되고 있으며, 카약·패들보드를 타면서 바다를 느낄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061-853-2425)도 즐길 수도 있다. 또한, 주말에는 다양한 제철 수산물도 직접 잡아보는 활어잡기페스티벌이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달 12일에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워터파크 울포해수욕장이 개장한다.

활어잡기 페스티벌은 22일까지 진행되고 여름철 식중독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임시 휴장한 다음 8월 24일부터 9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보성=안규일 기자

고흥군, 자기혈관숫자 알기 이동건강센터 호응

고흥군은 지난 1월부터 25회에 걸쳐 마을경로당과 행사장 등을 찾아가 자기혈관 숫자 알기 이동건강센터를 운영해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기혈관 숫자 알기는 스스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 한다는 것.

따라서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매년 9월 첫째주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자기혈관 숫자 알기 이동건강센터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복부둘레 측정 등 기초검사, 집환의심환자 상담,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육을 제공한다

고흥=한운섭 기자

광양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증축사업' 추진 본격화 한다

농가경영비 절감 기여

광양시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농가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양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존부지에 2년간 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297㎡ 규모로 조성된다.

미생물 생산시설은 2019년 하반기 신축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에 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멸균 배양기, 자동포장기 등 배양설비를 구축해 시험가동을 거쳐지게 되며,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 연간 약 150여 톤의 친환경 미생물제제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현재 4월부터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난 3일 신축 중간보고회를 갖고 보안사항을 추가해 6월 하순에 최종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은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보베리아균', '슈도모나스균' 등 총 5종이다.

시는 기존의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3종에서 신축 후 2종 추가해 공급할 계획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민선 7기 1년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 펼쳐

광장토론회로 직접 민주주의 꽃피우고 열매 맺을 것

지난 해 순천시는 도시 전역이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되고 탐사로 습지 도시 인증도 받았다.

신암사는 산사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2020년에는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선정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국제사회에 이름을 알린다. 오는 9월에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순천에서 열리는 등 다양한 대내외적 성과를 거뒀다.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미래를 내세운 민선 7기 순천시, 1주년의 시정 성과를 돌아본다.

▲ 광장토론회, 직접 민주주의의 순천의 뿌리가 되다

지난 1년간 시는 광장토론회를 다섯 차례 열었다. 지난해 8월 갑자기 멈춰버린 자원순환센터로 쓰레기 문제가 지역의 난제가 돼버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공개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첫 번째 광장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쓰레기기를 줄이고 자원을 순환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안들이 쏟아져 시가 폐기물정리를 수립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두 번째 광장토론회에서는 취임 100일을 맞아 민선 7기 시정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였다.

올해 들어서는 스카이크루브 문제와 대중교통 서비스 등 시민들의 관심을 끌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감한 시안들을 광장으로 끌어내 놓고 답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지난 달 19일에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다섯 번째 광장토론회에서도 시내버스 배차, 노선조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등 많은 건의와 제안들이 쏟아졌다.

▲ 현장에서 즉결 처리, 천막, 골목 대화 효과 톡톡

이 시장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마을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승주를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의한 중대마을 조망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을 직접 찾았다.

또, 해룡면 삼비마을 입구에서 3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마을 진출입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 전략대화를 실시했다.

그동안 12개 마을 현장에서 58건의 시민 제안과 건의 사항이 접수됐다.

▲ 주민자치회 활성화로 직접 민주주의 실현한다

시는 올 초 자치혁신과를 신설하고 사회혁신, 시민참여, 주민자치회 등을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마을기업 전문가를 낙안면장으로 채용했다. 전국에 한 명밖에 없는 민간인 면장이 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과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참여형 예산을 세우는 주민자치회도 8개 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영광모식있송편 체험하며 한일 음식문화 교류의 장 마련



영광군은 지난 6일 전남도 명예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일본 요리연구가 신카이 미야코가 영광군에 방문하여 전남 도립무형문화재 보유

자인 최윤자 음식명인에게 모식있송편 만드는 법을 전수 받았다고 밝혔다.

신카이 미야코 선생의 이번 방문은 영광모식있송편의 우수성을 일본에 소개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송편 만들기 체험을 위해 이루어졌다. 일행은 먼저 최윤자 우리음식체험장에 들러 모식있송편과 꽃송편을 직접 만들어 맛보는 등 체험시간을 갖

고 농업기술센터의 도시 유통지원포를 방문하여 재배현장을 둘러본 후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등 영광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에 올릴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도 함께 진행됐다.

전남 도립무형문화재인 최윤자 명인은 작년 4월 전남의례음식장(흔례음식) 보유자로 인정받았으며 신카이 미야코 선생은 약식·한국 요리 전문가로 각종 세미나와 매거진에서 활약 중인 요리 연구가로 명성이 높다.

영광=서희권 기자

광양시, '제4기 학생기자단' 발대식 가져

광양시는 최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광양의 생생한 소식을 전할 제4기 광양시 학생기자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생기자단은 지역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 초·중·고등학생 4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현직 기자가 전

하는 '기자 역할과 기사 작성법' 강의 등을 통해 평소 기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앞으로 활동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다잡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위촉장 수여와 학생기자단 운영계획, 저작권, 사진촬영 기법 등의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제4기 학생기자단'은 내년 5월 까지 1년간 학교의 소소한 일상은 물론 광양의 관광명소, 유익한 정책 등을 학생의 시각으로 신문기사, SNS 콘텐츠 등을 통해 전달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학생기자단 역량강화를 위해 캠퍼스, 간담회 등을 실시하며, 외부강사를 초청해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